잘한 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써 내 탓으로 생각하라

☞ 21면에서 계속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어리석으니까 저지르는 거지, 사람 본래 본성이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강도든 아니든, 도둑이든 아니든, 선하게 사는 사람이든 간에 본성은 다 평등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환경에 쪼달리고, 바람에 쓸리고, 이러다 보니까 남의 다리를 긁게 되고 그것도 시원치 않으니까 훔치러도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모자라게 하더라도 듣는 건 잘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분향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오계도 거기 포함돼 들어가니까, 못났든 잘났든 모두가 자기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고, 사느라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없죠? 따따부따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분향은 처음에 공부할 때에 이렇게 공부를 해라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부처님께서 당시에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쳤단 얘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모두 남의 탓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해라.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잘한 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써 내 탓으로 생각해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부딪치는 거지 내가 없다면 어떻게 부딪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안 그럴까요? 허공에다가 돌을 친다고 소리 나는 거 보셨어요? 돌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탓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있는 탓으로 인해서 상대에 부딪칠 수도 있고 상대로 인해서 누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첫째, 모든 것을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은사에게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불가에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안과 바깥의 모든 걸 다 모아라 이거야. 모으는 작업을 해라. 정(定)에다 놓는 작업을 해라. 이게 계향이에요.

정향이라 하는 것은 한군데다 모아서 익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익어진 것을. 아, 이제는 내 주장자가 엄연히, 딱 심봉이 박혀 있으니까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게끔 됐을 때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정향! 완전히 심봉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때, 이제는 그 정향 속에서 들이고 내는 살림살이가 여여하게 들이고 내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게 여여하게 돌아가게 되자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써 여여하게 하니까 자기 말이 법이 돼서 그대로, 들이고 내는 것이 모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또는 꺼내도 줄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정향에서 들이고 내는데 완전히 손색이 없다면 그때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혜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혜향! 지혜 혜 자, 혜향.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 오면서 느끼고 배운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분향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 '아하,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구나.' 하구요. 하하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처는 많고도 많더군요. 전부 그냥, 전부 부처예요. '전부 주인공이십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혜로워지면 그때는 들여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걸 자세히 얘기할까요? 심령을 천 개, 만 개를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죠? 그죠? 이 허공에 꽉 찬 마음을 다 꺼낸대도 줄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평등공법에 의해서 나오는 법 아닌 법입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 하는 혜향이 있습니다. 그 혜향이 이제 완성되면, 이게 꺼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게끔 완성된다면 마음이 다 익어 간다는 얘깁니다. 그런다면 그 속에 지금 오계로 받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내가 있으니까 부딪치는 거지 내가 없다면 어떻게 부딪칠 수가 있겠습니까.
허공에다 돌을 친다고 소리 나는 거 보셨어요?
돌이 마주 치니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탓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게 익어 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해탈향이 나옵니다. 그땐 뭐냐 하면 바깥에 다니면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같이 와서 얘기를 하거나 뭐, 하다못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거나, 이런 것들 전체를 그저 보는 대로 무명을 거둬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거둬 주는 게 아니라 일체 선명하게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져서 그 무명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진화를 해라, 이렇게 진화를 시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초등학교 다니는 거를 중학교로 올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걸 첨단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례차례 이렇게 올라가게끔 무명을 전부 벗겨 주는 것입니다. 묶여진 마음을 다 헤쳐 주는 것입니다. 무명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생명들을 다 그냥 풀어 주는 거죠. 그거를 풀어 주게 되면 자기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점프하게 되거든요. 진화를 해서 형성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습을 가지고 몇천 년 그냥 가도,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이거 말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해탈향' 이렵니다. '더불어 같이 묶인 무명을 풀어 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풀어 준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해탈지견향', 이것은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길 하면 또 복잡해서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을 테니까요. '해탈지견향' 하면 미생물에서부터 모든 게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도량 아님이 없으므로 일체 부처하고도 둘 아니고, 일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전부 하나로 묶어져서 펴지고, 펼쳐지고, 묶어지고, 하나로 되고, 수만으로도 되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구경 도리천에 이르러서 자유스럽게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 번에, 한 생각에, 찰나에 돌아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같이 응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또 같이할 수 있고, 내가 되지 않는 게 없고, 내 몸 아니 되는 게 없고, 지장, 아촉, 아미타, 미륵, 칠성, 관세음, 지신, 용신 모든 것이 내가 아니 됨이 없을 때 해탈지견향입니다.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 얻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름 아닌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 아닌 이름! 그래서 한울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 하는 것은, 도리천을 큰 바다라고 하면 이 바다 가운데서 그냥 인정을 한다, 인가를 한다 이런 거죠. 그냥 잔등이에, 이 몸 아닌 몸 잔등이에 그냥 처-억 (주먹으로 손바닥에 도장을 찍듯이 하시며) 인가를 받죠. 이렇게 인가받은 도장이 바로 법륜 마크나 만(卍)자 이런 것입니다. 그게 한만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중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상세계도 엄연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중세계에서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러한 공부가 돼서 진짜로 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면, 벗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대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옷을 벗으려면 벗고 말려면 말고, 금방 옷을 여기다 벗어 놓고선 그냥 가서 또 자유스럽게 이 옷을 입을래도 입고, 저 옷을 입을래도 입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해 보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6 · 25때 말입니다. 접시비행기라는 말 들어 보셨죠? 많이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게 접시 모양뿐만 아니라 타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뭐, 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긴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움죽거리는지 보셨습니까? 난 그때에 나이가 어렸지만 말입니다, 한 스물서넛 이렇게 됐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가 이렇게 떴는데 그 하나에서 줄을 지어서 나와요. 지금이 아니라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죠.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이건 마음의 자유로구나. 모습을 이걸로도 하고 저걸로도 할 수 있으니 부처님께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나오게 되면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서 응신으로 돼 준다고 하신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생각에 보살들을 헤아릴 수 없이 낳아서, 원하는 중생들에게 모두 하나로 응신이 돼 주신다고 그러셨죠. 또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 놓으면 한쪽에는 문수보살, 한쪽에는 보현보살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했으면 움죽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현신이 되거든요. 그것은 보현신이 되기 이전에 한 찰나에 화신으로 화해서 보현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삼신이 바로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가면서 밖에서 다가오고 안에서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 말로 다 합니까? 그러니까 남이 해 주는 게 없어요. 남이 대신 살아 주면서 대치를 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무리 친절하다고 그러더라도 똥 누는 거 대신 눠 줄 수도 없고,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죽는 것도 그렇고, 아픈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대신해 줄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틋하고, 자기가 앵하고, 자기가 괴로운 거를 그냥 '거기서 또 나오는구나! 하하, 나 공부시키느라고 참 잘 나온다.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어. 내일은 생각지도 않아. 그저 오늘 모든 걸…, 너를 믿으니까, 다 네 몸이니까, 그리고 네가 끌고 다니니까,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 그 모든 걸 거기다가 입력해서 믿고 놓는 거죠.

그런데 대치를 해서 바꿔 놔야만이 바꿔져서 나오지, '너 할 대로 해라.' 하고 그냥 놓으면 아무것도 입력되는 게 없어요. '너 할 대로 해라.' 그것만 입력이 되는 거죠. 음식을 하더라도 양념이 제대로 들어가고 간이 맞아야 되죠. 간이 맞지 않으면 덤덤하고 맛이 없죠, 똑같은 거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도 간이 맞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인생이 간이 맞게 태어나면 간이 맞게 살거든요. 넘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말입니다.

난 그래서요, 옷 한 가지가 더 들어오면 거북해요. 거북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착이죠. 허나 번뇌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번뇌 아닌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도 전부가 번뇌입니다. 번뇌라고 이름을 했기 때문에 번뇌지, 그것이 도를 이루어 나가는 도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도리를 알아서만 한다면 여여하게, 그냥 참 가지런히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세계에서 한번 이런 공부를 해서 공부에 종지부를 찍는다면 그냥 세세생생입니다. 그래서 '한 생 좀 어려우면 어떻고 한 생 좀 고달프면 어떠냐.' 하는 거죠. 어저께도 합창단 후원회에서 참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구나.' 하면서 생각한 겁니다. '아하, 좀 고달프면 어떠냐. 더불어 같이 고달펐지 여러분만 고달프라고 한 거는 아니잖느냐.'

자나 깨나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리만큼 말입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뼛속에서는 피가 흐를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것을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람다웁게 사는 것이 근본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람을 또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상세계의 자유인이 된다면, 마음으로써 마음껏 건질 수 있고, 마음껏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분향만 잘 알면 오계를 받은 뜻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분향을 알면 오계는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12월 3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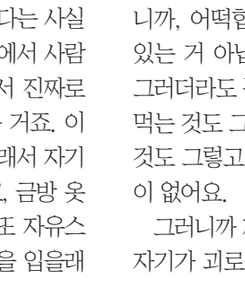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